

이 사람 - 전주 KCC 추승균 전 감독

“몸담았던 팀 성적 좋으니 기분 좋아”

1997년부터 20년 넘도록
현대 · KCC에서 활동
현재는 어린 선수들 가르치며
재능기부로 마음 다잡아

프로농구 전주 KCC의 추승균(45) 전 감독은 요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소년원에 나가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친다. 서울소년원 푸르미 농구단을 통한 재능기부다.

1997년 현대(KCC의 전신)에 입단해 이상민(삼성 감독), 조성원(명지대 감독)과 '이조추 trio'로 전성기를 누렸고, 챔피언결정전에 서만 5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공수에서 기본기가 탄탄하고, 기복이 없어 현역 시절 정상급 포워드로 활약했다. 묵묵히 제 몫을 해 '소리 없이 강한 남자'라는 별명도 붙었다.

코치와 감독을 지내며 20년 넘게 현대, KCC에서 몸담았다. 그러나 시즌 도중인 지난해 11월 성적부진으로 KCC 감독에서 물러났다.

잠시 코트를 떠나 있었지만 농구를 통한 재능기부로 마음을 다잡았다.

5일 만난 추 전 감독은 “감독을 그만두고 생각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와서 돌아보니 내가 많이 미숙했다.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많이 놓쳤던 것 같다. 팀에 몸담고 있을 때는 잘 몰랐다. 다 뒤늦게 깨닫는 것 같다”며 웃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마음은 편하다. 프로 감독으로서 성적, 경기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한마리도 거의 없어졌다. 몰라보게 젊어졌다.

틈나는 대로 KBL, 미국프로농구(NBA)을 보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전장진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KCC는 시즌 초반 8승4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하위 권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선수들의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돌풍에 가까운 성적을 내는 중이다.

전임 감독으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이다. 특히 지휘봉을 내려놓을 때, 자진 사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경질 수순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나 추 전 감독은 “KCC의 성적이 좋으니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 국내선수들이 많이 좋아진 게 보인다. 기쁘다”며 “나는 현대와 KCC의 프랜차이즈다. 이 팀을 계속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했다.

추 전 감독은 앞으로 초중고 엘리트 선수들



프로농구 전주KCC 추승균 전 감독.

을 위한 아카데미를 용인 죽전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유소년 스포츠 교육업체인 '업스포츠'(대표 염태희)와 손잡았다.

추 전 감독은 “기존에 있는 스킬트레이닝과는 다른 것이다. 스크린, 슈팅, 몸 밸런스 등 기본기와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엘리트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며 “학생 선수들이 학교에서도 좋은 지도를 받고 있지

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다. 나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엘리트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한국 농구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고 했다. /뉴시스



올해의 류현진

사이영 최종후보 3인으로 또 새역사

올스타전 선발 투수 ·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전체 1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이 한국인 메이저리거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다.

찬란한 2019시즌을 보낸 류현진이 또 한 번 쓰는 ‘최초’의 역사다.

BBWAA 소속 기자로 구성된 투표 인단의 투표로 선정되는 사이영상은 그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낸 투수에게 주어진다.

최고 권위의 투수상으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올해 얼마나 찬란한 시즌을 보냈는 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류현진이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는 건, 이번 사이영상에서 한국인 최초로 득표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류현진은 2019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정규리그 29경기에 등판해 182%이닝을 던지면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거뒀다. 22차례 퀄리티 스타트(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했고,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은 1.01, 90이닝 당 볼넷은 1.18를 기록했다.

올 한 해 한국인 최초의 기록도 이미 몇 차례 작성했다. 지난 7월 10일에는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등극했다. 아시아 투수로 범위를 넓혀도 1996년 당시 다저스 노모 히데오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랐다.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타이틀 홀더가 된 것은 역대 최초다. 아시아 투수가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었다.

한편, 이번 사이영상 최종 주인공은 오는 14일 발표된다. /뉴시스

태권도 생활체조 시니어부 3위 입상

무주태권도원공공스포츠클럽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서



사단법인 무주태권도원공공스포츠클럽(회장 이상욱, 이하 본 클럽)은 최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공공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생활체조(태권체조) 종목에 25명의 선수가 출전해 시니어부 3위에 입상했다.

본 클럽은 올해 1월 25일 법인을 설립해 태권도, 요가, 헬스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된지 1년도 안되었지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첫 출전하여 입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클럽 태권도 수련 회원의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특히 여성(할머니)회원 40여 명이 주 3회 이상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1일 전라북도태권도협회 3/4분기 정기 승단 심사에서 11명의 회원이 1단

으로 승단해 태권도 성지 무주와 우리클럽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상욱 클럽 회장(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면서, 태권도원의 우수한 체육 시설을 무주군민 누구나 본 클럽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의 간강 증진 법을 배우고 익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고마워요 50년, 함께해요 100년!